|  |  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|  |  | | --- | --- | | **사회경험을 통한 업무처리 능력** | 저는 (주)SOLOETNI 에서 근무하여 사회에 첫발을 내딛게 되었고, 디자인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. 이때,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`질문`과 `시선`이라는 두 가지 습관을 지니게 되었습니다.  첫째, '되묻는 질문'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. 업무를 지시하셨을 때, 지시한 내용을 다시 한 번 "~하면 되겠습니까?"라며 되묻는 버릇입니다. 듣기에는 좋지 않은 습관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지시사항의 요점이나 의사소통이 원만하지 않을 때,  되묻는 질문을 함으로써 업무의 내용을 다시 한 번 인지할 수 있도록 확인하는 긍정적 요소라고 생각합니다.  둘째, 업무에 대한 '부정적 시선'입니다. 전 직장에서 근무하였을 때, 업무수행 중에도, 업무가 끝났을 때도 계속해서 잘 수행하였는지 의심하고 확인하였습니다.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긍정적인 요소일 수는 있으나, 다른 업무가 밀리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. 그 이후, 개인용 수첩에 진행 상황이나 확인요소들을 메모하는 습관을 길렀습니다. 하루의 일정을 중요도 혹은 우선순위를 정하여 정리 후, 목표 기간을 세워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. 메모를 통해 과거를 좀 더 쉽게 돌아볼 수 있고 미래의 일정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 이러한 습관이 귀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. | | **개발자로서의 긍정적요소** | 저는 '열린귀'와 '방법'을 지니고있습니다.  많은 프로젝트는 혼자가 아닌 협업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. 자신의 의견을 말하며 소통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자신의 의견만을 고집한 채 다른 사람의 의견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업무의 지장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. 저는 "열린 귀"를 가지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그 의견들을 토대로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겠습니다.  둘째, 저는 즐겁게 일하는 `방법`을 아는 사람입니다. 저는 장기적인 업무에 지루함을 느끼는 일반적인 사람이었습니다. 즐거움을 느끼며 일을 하고싶어서 업무를 세분하여, 작은 목표를 해결함으로써 성취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. 이런 방법으로 일을 처리함으로써, 늘어지는 작업 기간을 단축하고 성취감도 느낄 수 있는 저만의 방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.  이러한 요소들이 귀사에서 근무할 때, 큰 강점으로 작용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| | **입사 후 포부** | 즐겁게 도전하겠습니다! "머리 좋은 자, 노력하는 자 못 이기고 노력하는 자, 즐기는 자 못 이긴다"라는 말이 있습니다.  제가 다른 지원자들보다 학점, 학력 등이 부족 할 수 있습니다. 뒤처져있음에 좌절하지 않고, 나아가겠습니다. 질문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며, 빠른 적응력으로 신속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배우겠습니다. 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귀사의 발전을위해 노력하고 배우려는 열의와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. 이런 저에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.  5년 뒤, 본받을 수 있는 상사, 같이 일하고 싶은 동료, 실망하게 하지 않는 후배가 되겠습니다. 10년 뒤, 이름만으로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`OOO 씨`가 되겠습니다. | |